

강원VR·AR제작거점센터 강원도 XR 콘텐츠 요람으로 우뚝



1 강원VRAR제작거점센터 소품
2 장비를 시연 중인 강원VRAR제작거점센터 이용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원장 김홍성)이 운영하는 '강원VR·AR제작거점센터'가 강원도 XR(확장현실) 콘텐츠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공모한 지역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지난 4월 춘천 서면에 약 890㎡ 규모의 강원 거점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XR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강원 거점센터에는 2022년까지 총 79억 원(국비 39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 24억 원)을 투입해 XR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시설 대여, 제작비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진행 중이다.

거점센터는 XR 관련 최신 장비(HMD, 360°카메라, 3D 스캐너 등)와 시설(콘텐츠 개발실, 테스트 베드룸, 모션캡처 스튜디오, 버추얼 유튜버룸)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에 소재한 XR 관련 기업 또는 창업자는 누구나 장비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XR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강원도 특화산업인 의료, 레저·휴양 분야 XR 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해 XR 콘텐츠를 제작 또는 상용화에 실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으로 2년간 15개 기업을 지원했다.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강원도 XR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기초교육은 60명 수료를 목표로 한다. 전문교육은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관동대학교 등 세 곳의 교육장에서 100명 수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 'XR 콘텐츠 퍼블리싱 지원사업'을 통해 강원지역 XR 기업의 홍보마케팅을 돕는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에 홍보물 제작, 미디어 광고, SNS,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거점센터는 이와 별개로 '강원메타버스산업협의회'를 구축해 강원지역 XR 기업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협의회는 강원지역 XR 관련 산·학·관 협력을 통해 신사업 발굴, 기술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김홍성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은 "최근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강원도의 XR 콘텐츠 기업들도 신속하게 대처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스마트토이비즈센터, 강원콘텐츠코리아랩, 강원음악창작소, 애니메이션박물관, 토이 로봇관을 운영하며 강원도 정보문화 산업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❶

강원도의 XR·메타버스 콘텐츠, 강원VR·AR제작거점센터가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내 XR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공간, 장비, 교육, 제작비, 마케팅 등 전 과정 지원